

# 아름다운 기적

누가복음 10:30-37

박진탁 목사님

## 1. 나누어야 할 이유

성령이 함께 하는 참사랑교회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환우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오래 했었다. 늦은 저녁에 병실을 들렀더니 소란스러웠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에 걸려서 죽게 된 청년을 길에서 발견하여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피가 없었다. 그때는 피를 돈을 주고 사야만 했었다. 의사가 피 한 병을 빼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극복할 길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생각났다. 길을 가다가 불행한 일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급하다고 지나갔다. 당시에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마리아사람이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갔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가 더 필요하면 더 줄 테니 연락하라고 한 것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다. 이 말씀이 나도 생각난 것이다. 그래서 헌혈을 하게 되었다. 열흘 후에 이 23세 청년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한 것이다. 이것을 보며 내가 너무 감사했다. ‘아, 주님이 피 흘리신 것처럼 나도 피를 주어서 생명을 살리게 되었구나.’ 이 축복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1968년부터 그래서 헌혈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 한 병 달라 하면 다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운동을 하면서 나는 모든 친구를 잃어버렸다. 드라클라를 만나는 것 같아서 안 만난다는 것이다. 요즘도 젊은 목사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다. 신장 하나 쥐, 간 떼 쥐 하는 연락이니까. (웃음) 사람을 보면 피 한 병으로 보였다. 그런 심정으로 죽기살기로 매달렸다. 1971년 부활절에,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나를 부르셔서 강단에 세우셨다.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피 한 병도 못 내겠느냐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 절반이 헌혈을 했다. 이것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헌혈운동이 일어났다. 헌혈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1968년부터 이 일을 해 온 것이다.

히13:16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고 했다. 눅6:38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누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 행복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아닌가.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야 전도할 생각이 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외국에 선교를 하면서 쌀도 주고 연탄도 줬다. 오늘의 요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직접 돕는, 생명 나눔 서약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 2. 장기기증 실천

(1) 헌혈 : 피도 장기의 하나다. 이제 6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짙은 헌혈을 해야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백혈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서 골수를 기증하는 것도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2) 신장이식 등 장기기증 : 콩팥이 사람에게 두 개가 있다. 이 두 개 중의 하나를 기증할 수 있다. 간은 하나인데, 절반을 떼어 줄 수 있다. 췌장의 일부를 줄 수 있다. 다섯 가지 장기를 우리가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이는 대로, 콩팥은 몸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당뇨, 혈압, 유전 등의 이유로 이게 무너지면 불순물을 걸러낼 수 없으니까 천국에 빨리 가야 한다. 이게 망가지면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뽑아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 이것이 혈액 투석이다. 이틀에 한 번 씩 다섯 시간 씩 가서 일생동안 해야 살 수 있다. 이 사람은 물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7만 5천 명이 있다. 이런 분에게 건강한 사람이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면,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나가 없어져도 신장 남은 하나가 80, 90%의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 남을 위해 주기는 어려워서, 가족끼리는 아프면 줄 수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에 남편이 아프면 준다는 아내는 많은데, 아내가 아프면 준다는 남편은 별로 없다. (웃음) 혈액형 달라도 상관없다. 가족이 주면 다른 사람의 신장과 교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 된 여학생이 어머니를 위해, 63세 된 아버지가 40세 아들을 위해 신장을 준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콩팥이 망가진 사람이 신장을 주기로 했는데 아무도 못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린 분이 958명이다. 여기에서도 그랬다. 10년 전쯤의 일이다. 최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겠다는 것이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황선태 목사님이 신장이식을 받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다. 여러분, 이쁜 분들이 있으면 가족끼리 해결하라. 건강 때문에 줄 수 없다 싶으면 우리를 찾아오라. 신장이 망가지면 이틀에 한 번 씩 투석을 해야 하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주에 치료센터를 만들었다. 치료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한 달 만 있다가 가라. 60명 씩이 새롭게 왔다갔다 하고 있다. 있는 동안 주님과 교체하도록 했다. 이식을 받을 때까지 주님과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와 교우들이 도움을 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식하는 분들을 위해 치료비를 부담하는 일도 하고 있다.

(3) 뇌사 후 장기기증 : 여러분은 몇 년까지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라.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줄 수 있는 장기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 사고를 만나서 뇌의 기능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장기를 줄 수 있다. 뇌의 기능이 완전히 못쓰게 된 것을 뇌사라고 한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보름을 넘길 수 없다. 10년 전에 어떤 군인이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려 버렸다. 뇌사라고 판정이 되면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헬기로 수송을 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뇌사가 확실하다고 해서 장기이식을 했다. 일곱 개의 장기를 기증했다. 군에서는 그 어머니가 큰 결심을 했으니 위로해 드리자 하여 모금을 했는데 2억 5천만 원이 모였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이 가서 위문을 했는데,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었다. 이 금액을 받지 않고 말씀했다. “일곱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만으로도 아들이 큰 일을 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그 아들의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게 되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몸을 드려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뇌사 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부터 법을 만들어서 뇌사를 법적 사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정도 뇌사로 세상을 떠나면 한 사람 정도가 장기기증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7-8명이 기증을 하고 있다.

(4) 사후 각막기증 : 눈동자에는 각막이 있는데, 각막 손상으로 후천적으로 못 보게 된 사람이 있다. 시신경이 다 망가진 사람 말고, 각막이 잘못되어서 못 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 시각장애인이 우리나라에 22만 2천 명인데, 그 중 10%는 각막을 이식받으면 볼 수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각막이식을 두고 신청한 사람은 3200명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신 분이, ‘내가 죽으면 각막을 떼어가세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각막기증을 할게요’ 할 수 있다. 영상에서 보았지만, 아이가 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각막을 기증한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1년 동안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봉사를 한 적도 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각막 가져가라고 마음을 먹고 살자. 시력과는 상관 없다. 68세 미만,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다. 아프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웃음) 눈을 몽땅 뽑는 게 아니라 각막만 떼어가는 것이다. 각막만 떼는 기계가 있다. 시신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삶을 마쳤을 때 두 사람에게 빛을 주고 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작년에 27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54만 개의 각막은 어디에 갔겠는가. 화장터에 갔다. 죽는 것도 서러운데 왜 눈을 뽑아가느냐 하는 분이 있는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각막을 주신 분은 63명이었다. 그래서 각막 하나에 320만 원씩 수입해서 쓴다. 대형병원 안과에 물어보라. 돈이 없으면

수입도 못 해서 못 보고 사는 것이다. 유럽에는 ‘선한사마리아인 규정’이라는 법률이 있다.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자신이 아무 해를 입지 않는 상황인데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 세상 법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혼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늘 고백하지 않는가. 작년 여름에 청년들만 모이는 수양회에 갔다. 부모, 형제가 아프면 신장을 떼어주자, 각막 기증하자 했더니 다섯 명 빼고 다 손을 들었다. 그런데 말로만 그러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전 국민의 48%가 기증한다고 등록했다. 영국은 기증하지 않겠다고 등록한 사람 외에는 다 기증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120만 명 등록받았다. 교회가 헌혈운동을 앞장서서 했듯이, 이 운동도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운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국민에게 의무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장기기증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게 되더라. 잘 사용해야 줄 수 있으니까.

### 3. 전도자의 삶 고백

마지막 말씀이다. ‘내 몸,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다. 내가 죽어서 생명이 살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빌 1:12-24)을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기록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 있는가? 처음 나온 기념으로 각막기증을 하자. (웃음) 사후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은 의무적으로 하라. 집에 가서 한다고 하면 거의 못 할 것이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꼭 하시기 바란다. 오늘 나눠드리는 것 중에는 빨간 딱지가 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이는 것이다. 오늘 이 증서를 많이 가지고 왔다. 가족, 친구에게도 돌려주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사랑의 하나님, 건강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당에 나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장기기증을 고민하고 등록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서, 건강에 이상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계속 허락해 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도록 계속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